

# 강대한 힘, 일심단결은 승리를 부른다

은 행성이 조선을 주시하고 있다.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의혹의 주시이다.

보통의 계산법으로는 산출해낼 수 없는 힘의 세기가 비약적인 상승세도로 질주하는 기적, 혹심한 곤란과 시련은 말할 것도 없고 도수나 범위에 있어서 그 류례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압살의 광풍에도 끄떡없는 저력에 대한 놀라움의 주시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정의를 지향하고 질투를 살기를 원치 않는 세인의 목소리이고 또한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오랜 세월 그리도 갖은 발악을 하다 기진한 적대세력의 안방에서 울려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를 지배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행성의 흐름을 확실하게 주도해나가는 명실상부한 선도자로 급부상한 조선의 지위를 세인의 이 갈망을 더 더욱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

조선을 알고 싶어서 그 갈망을 해소시키려는 결코 정확한 말이 필요한가. 한마디면 충분하다. 김일성광장을 보라.

이 광장에 력사에 일찌기 있어 명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국가의 영상이 비껴있다.

## 1

공화국이 지닌 강대함의 실체를 우리는 김일성광장에서 본다.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불가항력, 5천년민족사의 숙원인 부국강병의 대업을 이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이 영웅히 파시되는 김일성광장.

지구상의 가장 호전적인 무리들을 짓누르는 장엄한 열병의 대오, 무적의 철갑대오가 그 얼마나 보무당처럼 발구름소리 높이 울리고 지시를 뒤흔드는 광음을 이 광장에 얼마나 많이도 울려들었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격동과 흥분으로 달아오르던 가슴의 열기가 지금도 식지 않는다.

장엄하고도 위풍당당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과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김일성광장. 우리 국가를 세계최강의 전령로 역세계 떠받치는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 세기를 두고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전들마다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운 무장대오가 이 광장을 힘차게 누벼갈 때 이 광장에 영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제국주의폭제를 완벽하게 제압 분쇄할 수 있는 절대적힘을 비축한 최강의 병기들이 지축울리며 전진해갈 때 이 광장을 휩쓸었던 놀라움과 경란, 총격의 열풍.

돌이켜보면 김일성광장에서 모든 열병식은 조선이 두려워할 원수, 굴복시키지 못할 원수란 결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함께 절대적승리에 대한 부동의 신심을 백배해준 열병식들이었다.

언제나 승리자들이 들어선 광장이었고 위훈과 군공의 광장이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치고 광장이 없는 나라가 없고 그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력사를 소급해보면 침략자가 총 한방 쏘지 않고 강압한 나라의 광장을 요란스런 군악을 울리며 짓밟은 적도 있고 힘이 약한 탓에 쳐들어온 강도의 땅크가 제 나라 광장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참상을 한번 한마디 못하고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런 민족도 있다.

성대한 열병식을 벌여놓고 기세를 돋구었지만 쳐들어오는 제국주의의 횡포한 무력앞에 정예의 강군이라 일컫던 열병대오가 물먹은 담벽이 되버리고 발전된 무장장비를 갖추었던 부대와 병사들이 군기를 내던지고 서슴없이 회기를 들었던 그 굴욕을 력사는 수복하고 있다.

광장이 넓고 으르으르하다고 하여 또 그 광장에 열병대오를 빼곡이 채운다고 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힘을 표방하고 기세를 돋구던 수많은 광장들이 비극의 광장이 되고 패전의 시골들이 드리운 침침한 광장으로 화려한 광장을 세인은 수없이 목격하였다.

어떤 위인, 어떤 장군을 모시였는가에 따라 광장이 승리의 광장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의 광장이 될 수도 있으며 열병대오가 강군의 징표가 될 수도 있고 약졸의 징표가 될 수도 있다.

김일성광장은 안도의 수복속에서 진정한 조선의 첫 무장대오를 결성하신 20대의 청년장군, 강대성을 자랑하던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강철의 명장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키우신 불패의 강군이 펼쳐온 불멸의 전승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그 전승의 전통을 이어 미래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패승한을 안아온 승자들을 향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보내주시는 축복이 있고 오늘날 공화국을 절멸시키려고 피를 물고 설쳐대는 제국주의동맹을 놀려 드린 최강의 군력을 다져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강철의 기상이 어리어리하다.

문노니 이 행성에 이런 위대한 광도 승업하며 굳지높은 광장이 있다.

결출하신 명장들이 품들어 키우고 다져주신 필승의 대오가 어찌 강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대오가 굽어치간 광장에 어이 승리와 영광이 빛발치지 않을 수 있나.

전군의 첫 기슭에서 기관총을 메운 마차로 기계화총대를 대신 하였던 군대가 원자탄을 거머쥐 제국주의의 항복서를 밟고 이 광장에 안고 있는 7.27의 기적. 부르조아출판물들이 경악을

표시했듯이 《철회의 불퇴진지름 가을바람이 수수발을 건너가듯》하는 조선인민군앞에서 미제의 《상승사단》들은 런에서 피멸되었다.

후날 미국의 전쟁사들이 인정한바와 같이 1950년대에 당한 미국의 패배는 《기적할 정도로 쓰라린 것》이었다.

이 쓰라림은 지금까지도 미국에 있어 난치병이다. 조선은 단 한번도 미국에 이 쓰라림을 치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미국이 세계에 대고 떠드는 군사적허세는 그 어느 약소국에 없는 들이떡칠지 몰라도 조선에만은 결단코 통하지 않았다.

날로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위력, 제국주의를 악몽과 고비에 쓸어넣는 칠탄병기들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미국의 숙명이 되고 있다.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외세에 나라를 강탈당하지 않으면 안되던 그 세월 독립을 부르짖으며 사들이던 장군들었던 황승총의 사거리는 이것 150m.

눈물겹고 가슴터지는 항거의 150m에서 오늘날 저 우주만리로 비약적으로 추거쳐오른 조선의 국력과 존엄은 얼마나 눈부러 아득한 창공에서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있는 것인가.

이 전번, 이 기적, 이 전설의 실체를 김일성광장은 자랑찬 열병의 대오로 증명하고 있다.

열병의 주로는 비록 길지 않아도 그 대오가 새겨온 위훈의 백전백승사는 세기를 넘어 이 광장에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김일성광장을 승리의 광장이라 자부하고 광장이 자리잡은 거리를 승리거리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광장에 천년, 만년 열병식이 진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전승의 열병식이 될 것이며 승리만세의 합성만이 터져올것이다.

《오늘 세계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이다. 그 미국을 좌지우지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오직 조선 뿐이다. 결국 오늘의 세계를 좌지우지는 것은 조선이다.》

이것은 언제나 서방의 어느 한 신문에 실리었던 글의 한 대목이다.

무슨 힘으로 비대한 제국주의를 좌지우하며 다스리는가? 제국주의폭제와 강권에 휘둘러는 나라와 민족들이 그 폭제와 강권을 다스리며 취락떠락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조선의 신비스런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옛 격언에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또 그 누군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리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눈으로부터 손을 거쳐 붓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열광하는 것이 없어지는가.》라고 하였다.

백번 듣는 것보다, 장황한 글줄을

읽는 것보다 김일성광장에 한번 서보라.

조선이 틀어쥔 힘과 강대성을 보라. 김일성광장을 보면 조선을 안다.

## 2

한 해외동포교수가 한 말이 있다. 《우리가 북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은 딱 두가지가 아닐까 싶다. 하나는 우리가 북을 너무 모른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불공리한 것은 북이 아니라 남이고 남은 (북보리론)이다.》

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공화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데 적대세력들의 비극이 있다.

오늘까지도 시대착오적인 객기와 광기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허물어보려는 광적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침략전쟁연습과 악랄한 제재와 봉쇄, 낱을대로 낱을 《북인권》라 칭, 변태적인 자본주의문물을 들이밀려는 교활한 술책...

그야말로 그 수법과 양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망상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에도 오란이다.

다른 나라들같은 조락이나 붕괴의 운명을 면할 수 없는 시련과 난관, 술막하게 조여드는 압박과 공세에도 조선은 흔들림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오히려 류례없는 국난과 악조건에서도 세계에 대고 자부할만한 기적의 산아들을 띠어 탄생시키는 조선은 외부세계의 시각에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답은 김일성광장에 있다.

이 광장에는 그 어떤 채색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이 행성에서 유일무이한 감동의 화곡인 일심단결이 있다.

수령을 우리러 품목같은 만세를 터쳐올리며 이 광장으로 굽이쳐호른 장엄한 군중시위대오는 이 열마와도 수령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올 흥만된 의지를 우리러 터친 대회들과 해외행진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총성의 세계가 비껴있고 격정의 눈물과 격앙된 기세가 노드쳐 흘러흐른 김일성광장.

김일성광장이야말로 일심의 광장, 단결의 광장이다.

일심단결은 곧 사랑과 믿음이며 총성과 보답을 다하려는 뜨거운 진정의 몸집이다.

은 나라를 울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이 추억깊이 울려온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우리 인민모두가 무뎠무탈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심중의 도로를 터치시킨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우리러 인민이 흘린 눈물.

정에 울고 사랑에 우는 인민들. 이제 이 세상에 공화국인민밖에 더는 없다.

그 눈물은 령도자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출이며 령도자에게 운명도 미래도 다 의탁하며 살려는 마음속고백의 언어이다.

지금까지 력사에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제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알려져왔다.

그 가운데서 어느때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어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폭력이 안받침된 강제와 함께 돈과 물건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미전부터 《백성이란 채찍과 멍에와 풀만 있으면 되는 황소무리》라고 공공연히 뇌까린 자본주의정기무대에서는 여전히 근로대중을 《못생림》, 《정치의 리용수단》, 《가치창조의 부속물》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인민들이 우롱당하고 짓밟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선거철만 되면 정객들의 갖은 요설과 랑설이 소용공해를 일으키는 광장만 놓고보아도 막상 선거가 끝나면 속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들이 이 광장의 여기저기에 쓰레기처럼 널고있다.

실업과 빈궁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앞날에 대한 비관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터뜨리는 울분이 자본주의광장들에서는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김일성광장을 보라.

세인을 격동시킨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김일성광장도 더불어 오늘도 뜨겁게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의 열화같은 사랑과 은정에 목메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령도자의 정깊은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그이의 자애롭고 친근하신 영상을 우리러 뵈을 수 있는 김일성광장은 행복의 광장, 영광의 광장이 아니던가.

매혹과 숭배가 음양마냥 뿜어 번지고 정깊은 인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시어 시중 환히 웃으시며 손들어 환호에 담뉠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정이 가장 강렬하게 분출되는 김일성광장은 사랑의 광장, 정의 광장, 일심단결의 광장이다.

경애하는 그이께 달려가 안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석단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은 천만금을 들여도 연출해낼 수 없는 공화국인민의 참모습이다.

이런 사랑과 정은 뜻을 합치게 하고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해준다. 그 신념과 의지는 무엇이란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를 때 마다서는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원대한 리상을 향해 전진해나갈 눈부는 맹세이며 조선의 지향이었어이고 조선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온 세상에 각인시켜주는 총천하는 용기이다.

그 맹세와 용기를 활화산처럼 분출하며 김일성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던 대회들과 군중시위, 해외행진의 그 거세차고도 장엄한 광경은 그대로 조선의 단결력의 힘찬 기상이며 과시이다.

그 대오와 대하마냥 도도히 굽이치는 일심의 흐름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함성과 환희, 회결과 랑만은 또 얼마나 가슴가슴을 벅차게 뒤흔드는 것인가.

세차게 맥동치는 이런 기상, 열정과 쾌기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광장들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는 시위자들의 층위와 집회가 지금 이 시각도 연일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하여 사회의 각계층이 떨쳐나선 그 시위와 집회는 피말리는 제도에 대한 항거이며 죽는 것보다 못한 처절한 삶에서의 탈출을 원하는 몸부림이고 모지름이다.

그야말로 용촉된 분노와 원한의 집합체가 바로 대중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사회의 광장들이다.

너무도 대조적인 광장의 판이한 두 모습에 승승장구하는 사회상과 지리멸렬하는 사회상이 비껴있다.

자기가 사는 제도에 대한 믿음과 이 땅을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려는 자각된 열의가 도전한 인민에게는 막아서는 도장과 광풍을 이겨낼 힘이 반복되고 지혜가 솟아올라온다.

그 인민들의 뜻과 마음이 합쳐지는 김일성광장.

분출하며 김일성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던 대회들과 군중시위, 해외행진의 그 거세차고도 장엄한 광경은 그대로 조선의 단결력의 힘찬 기상이며 과시이다.

그 대오와 대하마냥 도도히 굽이치는 일심의 흐름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함성과 환희, 회결과 랑만은 또 얼마나 가슴가슴을 벅차게 뒤흔드는 것인가.

세차게 맥동치는 이런 기상, 열정과 쾌기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광장들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는 시위자들의 층위와 집회가 지금 이 시각도 연일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하여 사회의 각계층이 떨쳐나선 그 시위와 집회는 피말리는 제도에 대한 항거이며 죽는 것보다 못한 처절한 삶에서의 탈출을 원하는 몸부림이고 모지름이다.

그야말로 용촉된 분노와 원한의 집합체가 바로 대중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사회의 광장들이다.

너무도 대조적인 광장의 판이한 두 모습에 승승장구하는 사회상과 지리멸렬하는 사회상이 비껴있다.

자기가 사는 제도에 대한 믿음과 이 땅을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려는 자각된 열의가 도전한 인민에게는 막아서는 도장과 광풍을 이겨낼 힘이 반복되고 지혜가 솟아올라온다.

그 인민들의 뜻과 마음이 합쳐지는 김일성광장.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친 기상과 더불어 천변만화하는 세계의 흐름속에서도 오직 령도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소리 터뜨리는 이 광장에는 언제나 신념의 노래만이 메아리치고 있다.

일심단결로 승리해왔고 전진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일심단결로 부딪치는 난관과 도전에 깃부시며 나아가갈 조선의 선언이 김일성광장에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조선의 기적과 신화, 조선의 일심단결을 알려면 김일성광장을 보라.

김일성광장을 보면 조선을 안다.

이 행성에는 제나라의 의미와 상징을 담은 광장들이 수없이 많다.

독립광장, 공성광장, 승리광장, 자유광장, 대중광장이라 부르는 그 많은 광장들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부지기수이다.

문화화식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한 휴식광장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광장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광장들이 해당 나라의 명소로 되고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될 수는 있어도 한 국가의 정신과 위상을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광장은 되지 못한다.

한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비친다고 한 것처럼 김일성광장에는 조선의 모습과 목소리가 있으며 조

선의 기상과 넋이 있다.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대한 힘도, 인류사에 지극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높고 먼 조선을 확고히 세계정치 중심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보통상식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조선의 국력과 무시할 수 없는 확고한 그 지위를 알려주든 김일성광장을 보라.

공화국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 체질적인 악습으로 굳어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을 다는 모르고 김일성광장을 모르고 있다.

리성에 따른 판단능력이 결여된 이 적대세력들은 한사코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책동에 부질없는 객기를 부려대며 힘을 소비하고 있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는 조선의 대정치축전들을 솜탄 위성을 띄워놓고 보고있지만 그 거대한 위력과 진정한 의미를 타산으로 짐작해 못보는 자들은 전혀 가슴조차 못하고 있다.

일찌기 고대그리스의 철학자가 자기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날마다 울며 슬피떨고 울락의 정조가 질어지는 제국주의는 그들의 비참하고 가혹한 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조선에 대한 측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은 결코 제국주의의 허세성광기에 주점이 들거나 무릎 꿇는 나라도 아니며 그 어떤 제재나 전성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자기의 지향과 목적을 위해 선명한 길에서 물러서거나 예들지 않는 강의를, 수령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력사의 새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그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광장.

불의를 처갓기는 불패의 정기가 있고 부질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진리가 있으며 변색없는 지조와 단결, 원대한 뜻과 최상의 존엄이 있는 이 광장을 세계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국가가 떨릴 휘날리는 김일성광장에서 공화국인민은 눈부신 성공과 위대한 승리로 빛날 조선의 장창한 미래를 본다.

김 태 룡

